

만남, 우연과 필연의 미묘한 조화

로얄몬드 대표 최용길

좋은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이 있다. 이는 그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러나 좋은 인연이란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고비때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로얄몬드의 최용길 사장. 그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난다. 그러나 이런 풍경에 너무나 익숙해진 탓일까? 누구 하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인연이 있어 야만 길에서 한 번쯤 스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불교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 누군가 나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에 대해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만남이 지닌 우연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만남이란 자신의 힘이나 의지와는 무관한 영역이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로얄몬드의 최용길(42) 사장을 만난 순간 만남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우연성이 빛어 낸 산물일 뿐이라는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 직업과 아내를 소개해준 인연

그는 1957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던 탓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서울로 올라오게 된 그는 나이가 어릴테다 특별한 기술도 없어 신문팔이나 구두닦이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혼자서 힘든 서울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1년 반만에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중학교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다.

남보다 늦은 19살의 나이에 중학교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상경한 최용길 씨는 당시 종로에 있었던 '스넥코너'라는 곳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 제법 일에 익숙해질 무렵 느닷없이 그가 일하던 가게 건물이 철거돼 버렸다.

“줄지에 일자리를 잃게 돼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무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저에게 평소 친분관

게가 있었던 지배인의 친구 유병옥 씨가 제과점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그 분은 당시 신촌에 있던 제과점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겠다니까 한 제과점에 추천해 주셨지요.”

그렇게 제과업과의 인연을 맺게 된 그는 그 때까지만 해도 베이커리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전무했었다. 나이 어린 선배들의 구박(?) 속에서 묵묵히 기술을 배워 나간 그는 몇 곳의 제과점을 전전하던 끝에 유병옥씨와 함께 노량진에 있는 고려제과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에게 유병옥씨는 평생의 반려자가 될 부인 김경숙씨를 소개해 주었고 둘은 곧 결혼을 하게 되었다.

제과점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유병옥씨가 평생 그가 할 수 있는 일과 아내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라면 고려제과 사장은 그에게 제과점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다. 사장과 2명의 기술자가 전부였던 고려제과에서 그는 10년 동안이나 근무를 했다. 그가 것처럼 오래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사장의 사람 됨됨이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다.

“사장님은 당시 그 건물의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자신의 가게를 맡아 직접 경영해 보지 않겠냐고 물어 보시더군요. 매달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요. 처음엔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택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10년 넘게 제과업에 종사해 제과점 운영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과연 자신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 언제나 묵묵히 그의 일을 도와주는 부인 김경숙씨. 그는 어려울 때마다 앞에서 격려해주던 아내 덕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러나 주위 사람과 의논한 끝에 제과점을 경영하기로 결정한 그는 간단한 내부 수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힐 때까지 부인과 함께 매장 한켠에서 새우잠을 잘 정도로 장사에 전념했던 최용길씨. 평소 65kg를 유지했던 몸무게가 한 때 47kg까지 빠지기도 했다.

그렇게 7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갔다. 기회가 찾아 올 때 그랬

던 것처럼 시련도 그렇게 갑작스레 그를 찾아왔다. 어느 정도 제과점 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그는 그 가게를 원래 사장의 아들에게 다시 넘겨 주어야만 했다.

“저도 사람인데 사실 처음에는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들

었던 노력과 공이 모두 허사가 된 것 같아 허무했지요. 하지만 지금 전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그 나이에 제과점을 경영할 엄두조차 냈겠습니까?”

그는 두말 없이 제과점을 내주고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돈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림동에 있는 한 제과점을 인수했다. 그것이 현재 그가 운영하고 있는 ‘로얄몬드’ 제과점이다.

매달 고아원을 방문, 아이들과 함께 빵 만들어

최용길씨는 사람 만나는 것을 무척 좋아해 여러 개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유달리 고생을 많이 했던 까닭에 평소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군복무 시절, 자신의 이런 생각에 동의했던 친구들과 사회에 나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자고 약속했다. 제대 후에도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던 그들은 마침내 8년 전, 자신들이 부대에서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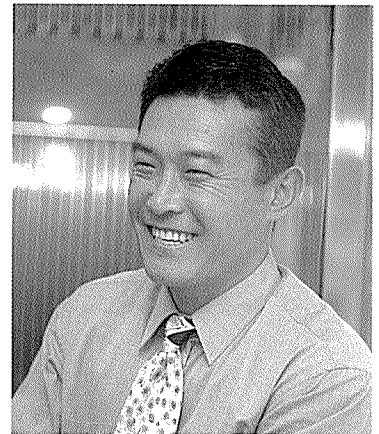
“8년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게를 인수할 때 생긴 중고 기계를 고아원에 기증해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빵을 만들곤 하지요.”

그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4명의 친구 중 3명이 현재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고아원을 방문할 때마다 필요한 재료를 조금씩 갖고 온다. 제과점을 하지 않는 친구는 아이들의 생일 선물을 준비해 온다.

“매달 고아원을 방문할 때가 되면 무척 행복하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난다. 그러나 정작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용길씨가 가진 좋은 인연들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제 만남에 대한 공식을 조금쯤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만남은 인간의 의지와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은 우연과 필연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이**

〈글 / 김경옥〉



↑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노래 얘기만 나와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CD가 두 장이나 될 정도로 노래 실력도 뛰어나다